

주간 통일정세

2017-39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9.23	北 김정은 성명 호응 당·군 동시집회...“반미결전 총궐기”(연합뉴스)
		北 노동당 출판사, 선전화 창작(연합뉴스)
		조선총련 성명 “김정은 성명 지지...조국 보위할 것”(연합뉴스)
	9.24	北, 평양서 10만 군중집회...“반미대결전 총궐기”(연합뉴스)
		北 리용호 “참수·군사공격 기미 보이면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연합뉴스)
		北 매체, B-1B·핵항모 칼빈슨 타격 합성사진 공개(연합뉴스)
	9.25	北 각지에서 반미 군중집회 이어져...체제선전 공연도 계속(연합뉴스)
北, 외국 정당·의회에 美비난 서한...“반미 공동전선 나서야”(연합뉴스)		
9.26	北 통신 “리용호, ‘G77’ 단합 위해 책임 다할 것 강조”(연합뉴스)	
9.27	北 노동자·농민단체, 김정은 성명지지...“반미 최후대결 열의”(연합뉴스)	
군사	9.25	한미 국방부, 27~28일 KIDD 회의...대북 확장억제 강화 논의(연합뉴스)
		軍 “B-1B 비행 한미간 사전조율”...北대공레이더 포착관측 잇달려(연합뉴스)
9.28	“북한, 함흥 섬유공장서 미사일 로켓연료 자체생산 가능성”(연합뉴스)	
경제	9.23	대북제재 탓 평양 휘발유가격 두달새 20%↑...ℓ당 2.59달러(연합뉴스)
	9.24	VOA “주북 외교관, 21일부터 기름값 급등했다고 전해”(연합뉴스)
		“잇따른 대북제재에도 올해 中 대북수출액 25% 늘어”(연합뉴스)
	9.26	통일부 “北유가 상승세...연초대비 휘발유가격 3배로 뛰어”(연합뉴스)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한다던 中, 5개월만에 수입 재개(연합뉴스)
	9.27	“최신 덴마크 군함 건조에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투입돼”(연합뉴스)
中, 비자제한탕 동북3성 北노동자 무더기 귀국...“이달 2천 600명”(연합뉴스)		
9.28	中 단둥 호시무역구도 ‘대북제재’...북한산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연합뉴스)	
사회 문화	9.23	北, ‘여명 관광기념품 전시관’ 개업(연합뉴스)
	9.24	기상청 “北 3.2규모 자연지진”...中 “핵실험 아닌 자연지진 특성”(연합뉴스)
	9.25	北, 국제사회 제재 속에도 국제상품박람회 개최(연합뉴스)
	9.27	北 김일성大, 성과 내세워...“우주항공인재 양성과정 완성”(연합뉴스)
외교 국방	9.23	北 신문, 트럼프 연설에 “온나라가 중요·분노로 끓는 용암”(연합뉴스)

	<p>조선신보 “트럼프가 잘못 뉘우칠 때까지 강력한 행동조치”(연합뉴스)</p> <p>北, 비동맹 회의서 “美때문에 핵문제 오늘의 지정 번져”(연합뉴스)</p> <p>北 조평통 “초강경 대응, 美에 상상못할 결과 보여줄 것”(연합뉴스)</p> <p>“美 의회, 北 핵·미사일 개발 지원국 원조 금지 추진”(연합뉴스)</p> <p>“中, 대북 농기계류 수출도 금지…전용 가능성 우려”(연합뉴스)</p>
9.24	<p>트럼프 “리틀 로켓맨, 오래 못 갈 것”…北리용호 연설에 반격(연합뉴스)</p> <p>北 “美 군사적 선택하면 비극적 종말 맞을 것”(연합뉴스)</p> <p>므누신 美재무 “트럼프, 북한과 핵전쟁 하고 싶어 하지 않아”(연합뉴스)</p> <p>잇따른 추방…스페인 北대사관, 외교관 한 명만 남아(연합뉴스)</p>
9.26	<p>北, ‘美 선전포고’ 주장하며 ‘영공밖 자위권’ 위협(연합뉴스)</p> <p>美 국방부, 리용호 발언에 “무력시위 포함한 모든 옵션 행사”(연합뉴스)</p> <p>北 “만단의 결전 진입태세 갖춰야”…연일 반미대결 강조(연합뉴스)</p> <p>매티스 美국방 “북핵 문제 외교적 해결 원해”(연합뉴스)</p> <p>최설희 北외무성 국장 모스크바 도착…“러 측과 협상하러 왔다”(연합뉴스)</p> <p>유엔 제재위, 北재래식무기 전용가능 이중용도 물자목록 공개(연합뉴스)</p> <p>대만, 북한과 무역 전면 중단…“핵폐기물 처리협약도 무효”(연합뉴스)</p>
9.27	<p>美, 北은행 10곳 무더기 제재…자금줄 원천봉쇄 나서(연합뉴스)</p> <p>“北, 트럼프 메시지 이해하려 전문가들과 7차례 접촉 시도”(연합뉴스)</p>
9.28	<p>RFA “다음달 유럽에서 북미 트랙1.5 회담 예정”(연합뉴스)</p> <p>아사히 “北·美, 다음달 오슬로서 비공식 접촉 전망”(연합뉴스)</p> <p>北 외무성, 트럼프의 워비어 발언 비난…“유치한 모략”(연합뉴스)</p> <p>中, 美압박속 대북제재 속도…北식당등 기업폐쇄로 돈벌이 차단(연합뉴스)</p> <p>말레이, ‘한반도 긴장’ 등 이유 자국민 북한여행 금지(연합뉴스)</p>
9.29	<p>北 매체, B-1B 공해상 비행 첫 반응…“위협천만 망둥” 비난(연합뉴스)</p> <p>트럼프 “김정은 별명 ‘로켓맨’은 모욕 아니라 칭찬”(연합뉴스)</p>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9. 23.

■ 北 김정은 성명 호응 당·군 동시집회...“반미결전 총궐기”(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간부들이 22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전날 성명에 호응하는 집회를 각각 열고 ‘반미결전’을 다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3일 보도했으며, 중앙방송은 “반미 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집회가 22일 조선혁명의 최고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는 최룡해·김기남·최태복·리수용·김평해·리만건·오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조선중앙TV 영상에서 포착됨.
- 집회에서는 먼저 최룡해가 김정은 성명을 낭독한 뒤 리만건과 조연준, 리영식 노동당 부부장 등이 연설했으며, 연설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규탄하며 ‘미친 불량배’, ‘불망나니 깡패’, ‘늪다리’ 등으로 맹비난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함.

■ 北 노동당 출판사, 선전화 창작(연합뉴스)

- 노동당 출판사에서 제재에 맞선 자력자강을 강조하는 ‘만리마 선구자 대회를 높은 혁명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만리마 속도 창조에서 앞장선 전형 단위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자!’, ‘자력갱생은 조선의 창조 본때!’ 등 3가지 종류의

선전화를 창작했다고 23일 중앙통신이 전함.

2017. 9. 24.

■ 北, 평양서 10만 군중집회...“반미대결전 총궐기”(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반미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집회가 23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며 10만여 명의 각계각층의 군중이 참가했다고 보도함.
- 집회에서는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장이 김정은 성명을 낭독했으며, 리일배 노동적위군 지휘관은 연설을 통해 “악마의 제국 미국을 이 행성에서 송두리째 들어낼 최후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혁명의 붉은 총창으로 침략의 무리를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함.
- 집회에 이어 군중시위가 이어졌으며 중앙통신은 “조선 인민의 쌓이고 쌓인 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괴멸’이요, ‘완전파괴’요 하며 악담질을 하는 천하 무도한 미국 강패무리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기세에 충만한 시위 참가자들의 함성이 광장에 메아리쳤다”고 밝힘.

2017. 9. 25.

■ 北 각지에서 반미 군중집회 이어져...체제선전 공연도 계속(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반미 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라선시 군중집회가 24일에 각각 진행되었다”며 관련 기사와 사진을 실음.
- 자강도에서는 김정은 성명을 김재룡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낭독한 후 김광호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리형근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연설했다고 신문은 전함.
- 신문은 “(연설자들은) 도 안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을 확립하며 일단 유사시 모든 힘을 전쟁 승리에 총동원할 수 있게 전민 항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밝힘.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9. 23.

■ **조선총련 성명 “김정은 성명 지지…조국 보위할 것”(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조선총련은 성명에서 “트럼프의 선전포고에 대하여 단호한 초강경 대응 의지를 발표하신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심을 담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며 “전체 총련(조선총련) 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은 트럼프의 정신병적인 광태에 이가 같리고 치가 떨려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우리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도 김정은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어머니 조국을 끝까지 보위할 것”이라며 “미국에 빌붙은 추종국 일본에서 그 어떤 모진 칼바람이 불어온대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명예, 재일동포들의 삶과 후대들의 미래를 위하여 승리의 그날까지 정의의 투쟁을 더 억세게, 더 과감히 벌려 나갈 것”이라고 다짐함.

2017. 9. 24.

■ **北 리용호 “참수 군사공격 기미 보이면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함.
- 리 외무상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경고하고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 또 “트럼프는 상식과 정서가 온전치 못한 데로부터 우리 국가의 최고 존엄을 로켓과 결부해 모독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 그는 전체 미국땅이 우리 로켓의 방문을 더더욱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만회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면서 “자살공격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라고 비난함.

■ **北 매체, B-1B·핵항모 칼빈슨 타격 합성사진 공개(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오늘’은 24일 ‘북극성 미사일’로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를 타격하는 합성사진을 공개함.
- 이 매체는 ‘선두에 서봐라’ 제목의 영상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공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연설하는 사진에 “미치광이 트럼프가 미 공군 70주년 기념연설에서 쉐친(떠든) 망발” “대북공격이 실시된다면 F-35가 선두에 설 것이다”라는 자막을 담음.
- 그러면서 미군의 F-35와 B-1B의 사진에 이어 지상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가 발사되는 영상을 보여주고, 미군의 두 비행기가 화염에 휩싸여 폭발되는 모습을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든 사진을 내보냈으며, 또 영상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발사되는 장면과 함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쾡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에 뒤덮이는 합성사진도 보여줌.

2017. 9. 25.

■ **北, 외국 정당 의회에 美비난 서한…“반미 공동전선 나서야”(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에 보내는 공개편지’와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의 ‘세계 여러 나라 국회들에 보내는 공개서한’ 내용을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24일자 편지에서 “트럼프와 같은 불망나니, 평화 파괴의 원흉의 독선과 전횡, 핵 위협으로 말미암아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깃뻛히고 주권국가들의 자주권, 인민들의 생존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함.
- 당 중앙위는 “자주와 정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이 세계를 핵 참화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의 무모한 책동을 짓부쉬버리기 위한 반미 공동행동, 반미 공동전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하는 바”라고 밝힘.

2017. 9. 26.

■ **北 통신 “리용호, ‘G77’ 단합 위해 책임 다할 것 강조”(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리용호 외무상이 22일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77개 집단 상(장관) 회의에서 연설하였다”라면서 이같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그(리용호)는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반제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정의와 평등,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77개 집단의 단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용호는 이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미국이 조작해낸 대조선 제재 결의들은 모두 이중 기준의 극치이며 전 조선반도를 지배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세계제패 전략의 산물”이라고 거듭 주장함.

2017. 9. 27.

■ **北 노동자 농민단체, 김정은 성명지지…“반미 최후대결 열의”(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과 농민 단체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이 26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근 대미 비난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함.
- 직총 중앙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김 위원장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우리 노동계급은 트럼프와 그 패당이 더는 잡소리를 치지 못하게 반미 최후대결 전, 조국통일 대진군 명령을 기다리는 전선에 우리 식의 전략무기, 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 보내줄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고 주장함.
- 농근맹 중앙위원회도 “원수들의 폭격 속에서도 전시 식량 생산을 보장하여 미제에게 참패를 안긴 전 세대 농민 영웅들처럼 가증스러운 도발자들에게 가장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릴 것”이라고 밝힘.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9. 28.

■ **“북한, 함흥 섬유공장에서 미사일 로켓연료 자체생산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 함흥의 한 화학섬유 공장에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액체 연료인 ‘다이메틸 하이드라진’(UDMH)을 자체 생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UDMH는 로켓연료로 사용되는 맹독성 화학물질로, 2012년과 201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금수 품목에 포함되었으며 UDMH는 생산이 어려워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이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저명한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공식 과학 저널인 ‘화학과 화학공학’에서 UDMH 개발

정황을 의심케 하는 논문을 찾아냈다고 하며 북한이 이미 UDMH를 자체 생산할 가능성을 제기함.

- 루이스 연구원은 북한이 ‘주체 섬유’라고 부르는 비날론이라는 싸구려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고도의 교육을 받은 핵연료 전문가가 근무한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이 공장에서 UDMH가 비밀리에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 공장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도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함.

나. 한국 및 미국

2017. 9. 25.

■ 한미 국방부, 27~28일 KIDD 회의…대북 확장억제 강화 논의(연합뉴스)

- 국방부는 25일 “미 국방부와 27일부터 28일까지 제1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우리 국방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 한국 측의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와 미국 측의 로버타 셰이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가 수석대표인 이번 KIDD 회의에는 양국 국방·외교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함.
- 국방부는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 발전,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및 양국간 국방 협력 증진,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등 동맹의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軍 “B-1B 비행 한미간 사전조율”…北대공레이더 포착관측 엿갈려(연합뉴스)

-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2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B-1B의 동해상 비행은 한미간 충분한 사전조율이 있었고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함.
- B-1B 출격 당시 북한군의 대응 동향에 관한 질문에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번 미국의 군사적 조치간 한미 양국은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다”며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함.
- 특히 B-1B 편대가 북한군이 동해안에 배치한 SA-5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에 포착됐을 수 있다는 관측은 엿갈리고 있는데, 북한이 동해안 방향에서 접근하는

항공기를 요격하고자 동해안에 SA-5를 배치해왔기 때문에 B-1B도 대공레이더에 포착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군 당국은 그럴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7. 9. 23.

■ 대북제재 탓 평양 휘발유가격 두달새 20%↑...ℓ당 2.59달러(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한 여파로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휘발유 소매가는 최근 두 달 사이에 20%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AFP가 평양에서 확인함.
- 한 주유소 직원은 “어제 (1kg에) 1.9달러였던 것이 오늘은 2달러”라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함.
- 휘발유 1ℓ는 0.77kg인 까닭에 현재 휘발유 가격은 ℓ당 2.59달러(약 2천 940원)에 해당하며, 도로에 자동차가 더 많이 다니던 올해 6월에는 휘발유 가격이 kg에 1.65달러 수준이었음.

2017. 9. 24.

■ VOA “주북 외교관, 21일부터 기름값 급등했다고 전해”(연합뉴스)

- 평양의 기름값이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급등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의 전언을 인용해 보도함.
- 이 방송은 평양 주재 외교관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6차 핵실험 전후로 kg당 1.6유로 수준을 유지하던 휘발유 가격이 21일을 기점으로 2.3유로로 급등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으며, kg당 1.7 유로였던 경유도 이날 기준으로 2유로로 올랐다고 방송은 보도함.
- 이 외교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평양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kg당 0.75유로, 경유는 0.84 유로 선이었다가, 4월 20일을 전후로 휘발유는 1.4 유로,

경유 1.5유로로 2배 가까이 올랐으며, 이후 8월 12일을 기준으로 휘발유 1.6유로, 경유 1.7유로로 소폭 상승하며 4개월째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음.

■ **“잇따른 대북제재에도 올해 中 대북수출액 25% 늘어”(연합뉴스)**

-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강화했지만 올해 중국의 대북수출액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중국 세관총서(관세청)를 인용해 24일 보도함.
- 산케이는 1~8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2억 8천 241만달러(약 2조 5천 752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5.3%나 증가했다고 전하며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대북 제재에는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함.
-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3억 3천 213만달러(약 1조 5천 3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 감소했는데, 중국이 지난 2월19일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2017. 9. 26.

■ **통일부 “北유가 상승세…연초대비 휘발유가격 3배로 뛰어”(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2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 이후 유가는 상승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8월 중순 이후 급등세를 보였고 휘발유는 연초에 비해 3배로, 큰 폭으로 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연초에는 휘발유 1kg당 북한 돈으로 6천원대 중반이었다고 말하며,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가 상승세가 평양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평양의 경우 주유권을 사서 주유를 하는 방식도 있어 가격을 측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그는 최근 평양에 다녀온 외신 사진을 분석한 결과 주유소 앞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가 줄을 선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으며, 이 당국자는 “최근 통계를 보면 중국에서의 곡물 수입은 조금 증가하고 있고 쌀값과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면서도 “무역과 물가, 민생에 대한 영향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9. 24.

■ **“잇따른 대북제재에도 올해 中 대북수출액 25% 늘어”(연합뉴스)**

-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강화했지만 올해 중국의 대북수출액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중국 세관총서(관세청)를 인용해 24일 보도함.
- 산케이는 1~8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2억 8천 241만달러(약 2조 5천 752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5.3%나 증가했다고 전하며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대북 제재에는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함.
-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3억 3천 213만달러(약 1조 5천 30억 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 감소했는데, 중국이 지난 2월19일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2017. 9. 26.

■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한다던 中, 5개월만에 수입 재개(연합뉴스)**

- 26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국가별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1억 3천 814만 달러 규모의 163만 6천 591t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월 19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한 이후 5개월만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임.
- 특히 8월 석탄 수입량은 지난 2월 수입금지 중단 조치전 6개월간 월평균 수입량에 상당함.

2017. 9. 27.

■ **“최신 덴마크 군함 건조에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투입돼”(연합뉴스)**

-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군함 건조에 투입돼 덴마크 국민의 세금이 북한체제로 흘러 들어갔다고 덴마크 언론이 26일 보도함.
- 덴마크 DR2 방송은 이날 오후 방송된 ‘군함의 비밀-덴마크 세금이 어떻게 북한으로 갔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오는 12월 실전 배치를 앞둔 덴마크 해군의 군함 ‘라우흐 코크(Lauge Koch)호’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폴란드 조선소에서 일부 건조됐다고 밝힘.

- 그러면서 계약서와 영수증, 함께 작업에 참여했던 폴란드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덴마크 군함 건조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국 덴마크인들의 세금이 폴란드를 통해 북한에 전달됐다고 주장했으며, 방송은 특히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의 중요한 소스가 되고 있다고 지적함.

■ 中, 비자제한탕 동북3성 北노동자 무더기 귀국…“이달 2천 600명”(연합뉴스)

- 27일 북중접경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에 앞서 북한 노동자 노동비자 연장을 불허하고 신규 발급을 억제하는 바람에 북한으로의 귀국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 실제 북한과 경계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린(吉林)성 연변자치주 옌지(延吉) 등지의 열차역과 해관(세관)·통상구에는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 일행이 자주 목격된다고 소식통은 전함.
- 중국 당국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이후 접경지역 소재 수산물가공·의류·전자부품 공장 등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비자 기한을 집중 점검하고 기한 만료된 노동자들에 대해 연장을 불허, 귀국토록 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은 북한 노동자의 추가 파견을 올초부터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국은 이어 북한측과 무역하는 중국 기업인들에 대해 합작기업 설립을 금지시켰고, 올해 4월부터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에 대해서도 비자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사범을 북한에 송환했는데 이런 조치로 랴오닝성 선양(瀋陽), 단둥, 옌지 등지의 북한식당에서 불법취업이 적발된 북한 여종업원들이 잇따라 귀국조치 되었으며, 영업부진과 벌금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북한식당 5~6곳이 문을 닫음.

2017. 9. 28.

■ 中 단둥 호시무역구도 ‘대북제재’…북한산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이 북중접경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호시(互市)무역구에서도 북한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 28일 단둥 중조변민 호시무역구(中朝邊民互市貿易區·이하 호시무역구)에 따르면 최근 한홍보(韓洪波) 단둥출입경검사검역국 부국장이 호시무역구를 시찰하고 무역구 내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를 강조함.

- 북중 교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호시무역구의 특성상 수입농산물은 북한에서 수입된 농산물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한 부국장의 지시는 사실상 북한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강화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되며, 국제사회 제재에 처한 북한이 외화벌이 일환으로 송이 등 고급 농수산물 수출에 힘 쏟는 상황에서 중국측의 검역 강화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9. 23.

- 北, ‘여명 관광기념품 전시관’ 개업(연합뉴스)
 - 평양 여명거리에 ‘여명 관광기념품 전시관’이 새로 개업했다고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사이트 ‘조선관광’이 23일 소개함.
 - 사이트는 “(전시관에서) 이름난 특산품들을 비롯한 관광기념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힘.

2017. 9. 24.

- 기상청 “北 3.2규모 자연지진”…中 “핵실험 아닌 자연지진 특성”(연합뉴스)
 - 북한 핵실험장에서 20여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함.
 - 기상청과 유엔 산하 핵실험금지 감시기구는 자연지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중국 당국도 당초 폭발에 따른 지진이 의심된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 뒀다가

- 나중에 핵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연지진의 특징을 가졌다고 정정 발표함.
- 특히 핵실험금지 감시기구는 이번 지진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기상청은 23일 오후 5시 29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23km 지역에서 규모 3.2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힘.

2017. 9. 25.

■ **北, 국제사회 제재 속에도 국제상품박람회 개최(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제13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됐다”라며 “전람회 개막식이 25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으며, 상품박람회에는 리주오 내각 부총리와 김영재 대외경제상, 평양 주재 외교관 등이 참석했고, 박웅식 조선국제전람회 사장의 개막연설에 이어 오룡철 대외경제성 부상이 축하연설을 함.
- 통신은 “연설자들은 이번 전람회가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도모하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들은 앞으로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들과의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하면서 쌍무적·다무적 협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함.
- 이번 상품박람회에는 북한과 시리아, 중국, 쿠바,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등의 상품이 출품됐으며 박람회는 28일까지 열림.

2017. 9. 27.

■ **北 김일성대, 성과 내세워…“우주항공인재 양성과정 완성”(연합뉴스)**

- 리국철 김일성대학 1부총장은 27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노작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발표 1주년을 맞아 노동신문에 기고한 논설에서 “대학에서는 노작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근 100건으로 세부화하고 그 과업들을 최단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할 비상이 높은 목표를 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였다”고 전함.
- 리 부총장은 “이 기간에 대학에서는 산림과학대학과 수십 개의 학과, 연구실을 새로 내은 데 이어 우주항공기술 부문의 인재양성을 위한 과정안과 교수요목을 완성하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전공 분야의 권위자들, 많은 모범 교수들과 관록 있는 연구집단들을 배출하였으며 원격교육대학의 학과와 학생 수를 늘렸다”고

밝힘.

- 리 부총장은 이어 “2천여 건의 각종 도서와 교과서, 참고서와 문학작품, 논문 등을 집필·출판하였으며 양자 암호 통신기, 라만 현미경, CNC 플라즈마절단기와 같은 첨단 제품들을 제작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핀 제조의 응용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들을 개척하고 100여 개의 공장, 기업소에 나가 수백 건의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전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9. 23.

■ 北 신문, 트럼프 연설에 “온나라가 증오·분노로 끓는 용암”(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접한 북한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을 대대적으로 소개함.
- 노동신문은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천만의 노성(怒聲)이 활화산처럼 터져 올라 온 강산을 무섭게 진동하고 있다. 온 나라가 증오와 분노로 펄펄 끓는 거대한 용암”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분노한 북한 내부 분위기를 전함.
- 한 전쟁 노병은 “탁구알(탁구공)만한 수소탄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백악관에 안고 들어가 트럼프의 더러운 살덩어리가 한 조각도 남지 않게 깨끗이 불바닥질 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며, 이어 신문은 “황철(황해제철소)의 용해공들이 세차게 끓는 쇳물 가마에 트럼프를 집어넣겠다고 욱욕 베티를 때 강선의 노동계급은 쇠장대(쇠막대기)로 그놈의 사지를 찍어 압연기로 밀어버리겠다고 노성을 터뜨린다”고 밝힘.

■ 조선신보 “트럼프가 잘못 뉘우칠 때까지 강력한 행동조치”(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3일 “조선(북한)에 대하여 경거망동하면 미국이 무사치 못하다는 것을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그들의 상정(想定)을 벗어난 강력한 행동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밝힘.
- 조선신보는 이날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나라와 인민을 대표한 폭탄성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이 미국을 다스리는 무대는 미국 본토와 잇닿은

태평양”이라며 이같이 공언함.

- 이 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예고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는 지난 시기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취한 자위적 조치와 수준을 달리한다”고도 주장함.

■ 北, 비동맹 회의서 “美때문에 핵문제 오늘의 지경 번져”(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블록불가담운동 상회의(비동맹운동 장관회의)가 20일 유엔본부에서 진행되었다”며 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는 철두철미 미국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고 미국 때문에 오늘의 지경으로 번져진 문제이며 그 책임도 전적으로 미국에 있는 문제”라고 주장함.
-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반(反)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난하며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루어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 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북한의 기존 주장을 반복함.

■ 北 조평통 “초강경 대응, 美에 상상못할 결과 보여줄 것”(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3일 “우리가 취하게 될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는 미국의 호전광들과 그 졸개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조평통은 이날 성명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응해 21일 발표한 ‘국무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한다”며 이같이 밝힘.
- 조평통은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수 미제의 괴수인 트럼프와 같은 미치광이를 그대로 두면 온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북남관계 개선도 조국통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함.

■ “美 의회, 北 핵·미사일 개발 지원국 원조 금지 추진”(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온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RFA는 최근 미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심의를 앞둔 2018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법안에 북한을 지원해온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고 전하면서 방송은 “특정 국가를 정조준해 그 지원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 원조까지 전면 금지토록 한 규정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임.
- 해당 법안은 우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온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이 같은 규정이 국무부는 물론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포함해 외교 관련 전체 예산 집행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함.

2017. 9. 24.

■ **트럼프 “리틀 로켓맨, 오래 못 갈 것”…北리용호 연설에 반격(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원색적인 언어로 자신을 공격한 데 대해 곧바로 반격에 나섬.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방금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들었다”며 “만약 그가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김정은)의 생각을 되 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불렀고 22일 앨라배마 주에서 열린 공화당 루서 스트레인지 지원유세에서는 어린 사람을 알잡아 보는 듯한 ‘리틀’이라는 단어를 붙여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함.

■ **北 “美, 군사적 선택하면 비극적 종말 맞을 것”(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4일 북한에 대한 ‘완전파괴’를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우리는 그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밝힘.
- 아태평화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며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는 우리 최고 수뇌부의 폭탄선언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함.
- 이어 “만일 미국이 우리의 힘과 의지를 오판하고 끝끝내 무모한 군사적 선택으로 나온다면 아메리카 제국의 운명은 가장 비극적인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므누신 美재무 “트럼프, 북한과 핵전쟁 하고 싶어 하지 않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 므누신 장관은 이날 미 ABC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은 핵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으로 치고받는 ‘말의 전쟁’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2017. 9. 26.

■ **北, ‘美 선전포고’ 주장하며 ‘영공박 자위권’ 위협(연합뉴스)**

- 유엔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의 이틀 전 북한 동해 국제공역 비행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하지 않아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는 이날 오전 뉴욕의 숙소 호텔을 떠나기 전 발표한 성명을 통한 것임.
- 특히 리 외무상은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어질 권리를 포함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함.
- 앞으로 미국이 B-1B 랜서와 같은 전략폭격기를 북한 인근 국제공역에 전개할 경우 개별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불시에 무력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인 셈임.

■ **美 국방부, 리용호 발언에 “무력시위 포함한 모든 옵션 행사”(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출격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데 대해 B-1B 비행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리 외무상의 성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밤 B-1B 랜서 무력시위는 “비행할 권리가 있는 국제공역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매닝 대변인은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 미 본토를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 “만단의 결전 진입태세 갖춰야”...연일 반미대결 강조(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6일 ‘전당, 전군, 전민이 반미 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면 적의 아성을 일격에 격멸·소탕할 수 있게 만단의 결전 진입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이어 “수령 결사옹위에 반미 대결전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신념을 안고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원수들의 온갖 발악적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수령 보위, 혁명 보위 성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또 “우리 인민은 미제가 자기 나라를 마구 짓밟개도 참아야만 하는 힘이 없는 인민도 아니고 덩치가 커가지고도 금전을 쫓아 미국 앞에 납작 엎드리고 구걸하면서 존엄을 파는 그러한 나라의 인민은 더욱 아니다”라며 중국 등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을 간접 비난하기도 함.

■ **매티스 美국방 “북핵 문제 외교적 해결 원해”(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고조되는 북한 핵위기를 외교적으로 풀기를 희망한다고 26일 밝힘.
- 인도를 방문 중인 매티스 장관은 이날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국방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목표는 이 문제(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은 외교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북한의 도발이 현저해진 가운데 이 같은 점이 더욱 강조됐다”고 말함.
- 매티스 장관은 이어 “동시에 우리는 북한의 가장 위험한 위협을 억지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관들이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외교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함.

2017. 9. 27.

■ **美, 北은행 10곳 무더기 제재...자금줄 원천봉쇄 나서(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가까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첫 이행조치임.
- 미 재무부는 이날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으며, 또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국외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음.

- 이와 함께 기존의 13722호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해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

■ “北, 트럼프 메시지 이해하려 전문가들과 7차례 접촉 시도”(연합뉴스)

- 북한 정부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을 이해하기 위해 여당인 공화당과 끈이 있는 전문가들과 은밀한 접촉을 추진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WP는 북측이 접촉한 분석가들에는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조지 H.W. 부시 정부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등에서 국가안보회의(NSC)에 재직했던 더글러스 팔 카네기 평화연구소 부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수교하지 않은 북한은 주유엔 대표부를 통해 클링너 연구원을 평양으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팔 부원장에게는 스위스와 같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공화당과 연계된 미국 전문가들과 북한 현직 관료들 간 대화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과거 대화를 주최한 적이 있는 기관들에 무려 7차례나 이런 만남을 요청했다고 함.

2017. 9. 28.

■ RFA “다음달 유럽에서 북미 트랙1.5 회담 예정”(연합뉴스)

- 북한 당국자와 미국의 전직 당국자 등이 참여하는 트랙1.5(반관반민) 대화가 10월 중순 유럽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RFA는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고위급 관리와 미국의 전직 국무부 관리, 학자가 다음 달 중순 유럽에서 회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이날 밝혔는데, 아직 만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측에서는 최설희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 이와 관련, RFA는 한 외교 소식통이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트랙1.5 대화에 매우 적극적이라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RFA는 북한이

최근 미국의 유력 방송과 신문을 평양에 초청하고 있다고 언급함.

■ **아사히 “北·美, 다음달 오슬로서 비공식 접촉 전망”(연합뉴스)**

- 미국의 전직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가 10월 중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북한 당국자와 비공식 접촉을 할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이 한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함.
- 아사히는 미국 측 참석 예정자로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 등과 논의했던 인물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당시 북미 비공식 대화에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6자회담 전 차석대표 등이 참석함.
- 신문은 “북한 측에선 최선희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이 참석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 측은 한성렬 외무성 부상 아니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신문은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은 미국 정부에 현직 당국자의 참석을 타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번 접촉은 “군사충돌 우려가 있는 북미간의 대립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전함.

■ **北 외무성, 트럼프의 워비어 발언 비난…“유치한 모략”(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어를 최근 또다시 거론한 데 대해 “유치한 모략 날조품”이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국제적인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모략소동에 이미 저세상에 가있는 워비어까지 써먹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의 정책 작성자들의 대조선 적대감이 얼마나 뿌리 깊고 지독한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함.
- 담화는 “우리는 그(워비어)의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과 관련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해주었다”라며 고문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그러면서 “현실은 최대 적국인 미국놈들에게 관용이나 인도주의적 고려는 절대로 금물이라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주고 있다”고 밝혀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2017. 9. 29.

■ **北 매체, B-1B 공해상 비행 첫 반응…“위험천만 망동” 비난(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9일 ‘천만군민의 보복 의지를 치솟게 하는 도발 망동’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조선 동해 공해 상공에 출격시킨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며 추후도 묵과할 수 없는 반공화국 도발”이라고 밝힘.
- 이 매체는 “올해에만도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를 19차례나 조선반도 상공에 출격시켰지만 모두 괴뢰들과의 합동군사훈련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은 괴뢰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비행훈련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이) 모든 작전과정을 실전과 같이 진행하고 공중급유기까지 동원함으로써 우리를 강하게 압박해 보려고 획책하였다”고 비난한 뒤 이번 출격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오산이며 개꿈”이라고 반박함.

■ 트럼프 “김정은 별명 ‘로켓맨’은 모욕 아니라 칭찬”(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로켓맨’(Rocket man)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함.
-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밤 고액 기부자들과의 비공개 만찬 행사에서 ‘로켓맨’ 별명에 대해 “나는 그것이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칭찬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함.
- 이에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노망난 늙은이’(dotard)라고 반격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별명의 수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며, 그는 “그래서 나는 ‘좋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를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고 함.

나. 북·중 관계

2017. 9. 23.

■ “中, 대북 농기계류 수출도 금지…전용 가능성 우려”(연합뉴스)

-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중국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작년부턴 북한에 농기계류를 수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함.

- 이는 작년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한 중국이 전용 가능성을 우려, 수출제한 대상품목을 농기계류까지 확대한 것이어서 주목됨.
- 중국 산둥(山東)성의 주요 농기계 제조업체인 우젠그룹 관계자는 SCMP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디젤 펌프와 과중기, 절수용 스프링클러, 콤바인, 트랙터, 농산물 수송 트럭 등 농기계류 일체를 북한에 공급했으나 작년부턴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고 전했으며, 그는 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북한에 나사 1개라도 팔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힘.

2017. 9. 28.

■ **中, 美압박속 대북제재 속도…北식당등 기업폐쇄로 돈벌이 차단(연합뉴스)**

- 중국은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뒤 11일 만에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금수를 발표한 데 이어 중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 폐쇄하라고 통보함.
-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북중 합작, 합자, 외자 기업들로 사실상 중국 내 대부분 북한 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내 운영 중인 북한식당도 폐쇄대상에 올라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은 “중국 내 북한식당들은 북중 합자, 공동운영(합작), 북한 독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부분 식당이 이번 상무부 조치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으며, 이 소식통은 이어 “유예기간인 120일 이내에 북한식당은 명의 변경 등을 통해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9. 26.

■ **최설희 北외무성 국장 모스크바 도착…“러 측과 협상하러 왔다”(연합뉴스)**

- 북한의 대미외교 핵심 실무자인 최설희 외무성 북미 국장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함.

- 최 국장은 방문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러시아 외무성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왔다”고 간단하게 답한 뒤 주러 북한 대사관이 마련한 차량에 올라 모처로 이동함.
- 최 국장의 방리는 미국과 북한 간 강경 대결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해결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러시아 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최 국장은 모스크바에서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와 회담할 예정임.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9. 24.

■ 잇따른 추방…스페인 北대사관, 외교관 한 명만 남아(연합뉴스)

- 24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주(駐)스페인 북한대사관은 내달부터 1인 공관 체제로 운영됨.
- 스페인 외무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항의해 김혁철 북한대사에 추방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지난 8월 말 이미 공관 규모를 축소하라고 북한에 통보함.
- 스페인 정부는 북한이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발사했을 때 모두 북한대사를 불러 항의한 뒤 8월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외교관 1명을 줄이라고 통보함.

2017. 9. 26.

■ 유엔 제재위, 北재래식무기 전용기능 이중용도 물자목록 공개(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새롭게 작성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이 목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대북제재위를 이끄는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가 지난 5일 제출한 것으로, 최근 유엔 사무국에 의해 일반에 공개됐다고 VOA는 전함.
- 해당 목록은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재료 처리 장비’, ‘전자제품’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뉘었고, 항목마다 관련 물자의 이름과 전문적인 정보가 상세하게 명시됐는데, VOA는 고온에서 유리로 전이되는 폴리에테르이미드 재질이나, 녹는점이 1천600도를 초과하는 섬유 및 필라멘트 소재 등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품목이 대거 목록에 포함됐다고 설명함.

■ **대만, 북한과 무역 전면 중단…“핵폐기물 처리협약도 무효”(연합뉴스)**

- 대만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결의를 준수하는 국제사회 노력의 일부로 북한과의 모든 무역 활동을 금지했다고 26일 교도통신이 보도함.
- 대만 행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과의 양자무역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쉬귀용(徐國勇) 행정원 대변인은 대만이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 조치를 따를 것이라고 밝힘.
- 26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국영 대만전력의 린더푸(林德福) 대변인은 1997년 북한과 체결한 핵폐기물 처리협약은 북한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원천 무효라고 밝혔으며, 북한에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어떤 비용도 지불된 적 없다고 말함.

2017. 9. 28.

■ **말레이, ‘한반도 긴장’ 등 이유 자국민 북한여행 금지(연합뉴스)**

-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으로 인한 긴장 고조를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함.
-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말레이시아인은 추후 공고가 있을 때까지 북한 방문이 금지된다”고 밝혔으며, 외무부는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전개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여행금지 조치는 상황이 정상화된 뒤 재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초에도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자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했다가 최근에야 해제한 바 있음.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9.23	송영무, 美국방예산 관여 상원의원 면담...한반도방위 협력 당부 (연합뉴스)	
	9.28	한미 국방부 KIDD 회의...“전자권 전환 노력 가속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9.28	文대통령 “중국 관계 복원은 우리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9.23	정부, ‘한미일회담 보도’ 관련 日에 외교채널로 유감 전달(연합뉴스)	
		한일, 뉴욕서 외교장관회담...北 도발 대응 논의(연합뉴스)	
	9.26	이준규 주일대사 日 외무상 “서틀외교 중요...아베 韓방문 노력”(연합뉴스)	
	9.26	외교부, 日야소 ‘北난민’ 발언에 “매우 유감”(연합뉴스)	
	9.27		아베, 이준규 주일대사에 ‘위안부 추모비 건립 우려’ 표명(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9.24		中, 美의 태양전지 수입제한 가능성에 반발...“WTO규정 준수하라” (연합뉴스)	
	9.25		中, 美 B-1B 북한공역 비행에 '우려'...“힘 과시는 긴장 가속” (연합뉴스)	
	9.27		北美 '말폭탄' 싸움말리는 中 “트럼프는 북한에 겁주지 말라” (연합뉴스)	
				中, 트럼프 대북 군사옵션 거론에 “무력으로 문제 해결 못 해”(연합뉴스)
	9.28		美中 고위층 잇따른 상호방문...북핵·트럼프 11월 방중 논의(연합뉴스)	
			미 고위 관리, '중국의 북 기업 폐쇄' 긍정 평가(자유아시아방송)	
9.29		중국 방문 나선 힐러슨 美 국무 “北문제 테이블 위에 올 것”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9.27		크렘린궁 “美 전략폭격기 北 인근 비행 극히 바람직하지 않아” (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9.24	왕이 “日, 북핵대화 방해하면 안보리 결의 위반...언행 신중하라” (연합뉴스)		
	9.25	中 “트럼프, 韓대북지원 불쾌감 표시했다”는 日언론 오보 비판 (연합뉴스)		

	9.28		“아베, 도쿄서 열리는 중일국교정상화 45주년 행사 참석”(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9.25	中·러 해군, 日북단 오토츠크해서 첫 훈련...“美日 압박의도”(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9. 23.

■ 송영무, 美국방예산 관여 상원의원 면담…한반도방위 협력 당부(연합뉴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3일 미국 국방 예산 편성에 관여하는 스티브 데인스 미 상원의원(공화·몬태나)을 만나 한반도 방위에 대한 협력을 요청함.
- 국방부는 이날 “송영무 장관이 오늘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상황 확인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스티브 데인스 미 상원의원을 만나 오찬을 겸한 환담을 했다”고 밝힘.
-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미 국방 예산 편성을 승인하는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소속인 데인스 의원에게 대북 억제력 발휘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함.

2017. 9. 28.

■ 한미 국방부 KIDD 회의…“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국방부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정례 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함.
- 국방부는 28일 이틀간 일정으로 전날부터 국방부에서 열린 KIDD 회의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하여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 국방부는 “양국은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 배치를 강화하고 한미 공동의 전략적 소통을 향상시키는 등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설명함.

나. 한·중 관계

2017. 9. 28.

■ 文대통령 “중국 관계 복원은 우리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사드 보복조치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 복원해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발언함.
-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국과의 공조, 협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한국은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지금 중국이 당 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현 상황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길게 내다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발언함.

다. 한·일 관계

2017. 9. 23.

■ 정부, ‘한미일회담 보도’ 관련 日에 외교채널로 유감 전달(연합뉴스)

- 정부는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논의에 대해 일부 일본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으며 일본 측에 외교채널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23일 전해짐.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 후 일부 일본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정부는 일부 일본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가 ‘아베 신조 총리를 수행한 관계자(소식통)’를 인용한 만큼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전함.

■ 한일, 뉴욕서 외교장관회담…北 도발 대응 논의(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함.
- 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발사 도발 및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을 통한 고강도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관측됨.
- 또한 제재압박, 대화 등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양국 입장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음.

2017. 9. 26.

■ **이준규 주일대사 日 외무상 “셔틀외교 중요…아베 韓방문 노력”(연합뉴스)**

-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와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26일 일본 외무성에서 만나 양국 간 대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전함.
- 이 대사와 고노 외상은 양국 정상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이른바 ‘셔틀외교’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고노 외상은 “한일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이 대사는 셔틀외교가 부활하지 않는 현 상황을 “이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 **외교부, 日아소 ‘北난민’ 발언에 “매우 유감”(연합뉴스)**

- 외교부는 26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난민이 몰려올 것을 대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위기론을 조장하는 발언을 최근 한 것을 비판함.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북한 난민 발언 관련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각료가 최근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북한 난민 관련 편협한 발언을 한 것은 국수주의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며, 난민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논평은 이어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거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함.

2017. 9. 27.

■ **아베, 이준규 주일대사에 ‘위안부 추모비 건립 우려’ 표명(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7일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에게 한국 여성가족부가 국립망향의동산에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임 인사차 총리관저를 방문한 이 대사에게 추모비 건립은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모비 건립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위반이며,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양측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9. 24.

- 中, 美의 태양전지 수입제한 가능성에 반발…“WTO규정 준수하라”(연합뉴스)
 - 중국이 태양광전지에 대한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함.
 - 24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의 무역구제조조사국 국장인 왕허쥘(王賀軍)은 미국이 관련국과 자국내 태양광 관련기업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 제품이 자국산업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은 태양광 전지 관련제품의 글로벌 유통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미국내 관련사업의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 왕 국장은 미국 조사기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해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함.

2017. 9. 25.

- 中, 美 B-1B 북한공역 비행에 ‘우려’…“힘 과시는 긴장 가속”(연합뉴스)
 -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한데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미국에 강한 우려를 표명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25일 “미국 폭격기가 북한의 공역을 비행했다”면서 “이런 힘의 과시는 긴장을 가속하며 주변국들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지적함.
 -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미군의 전개는 일반적인 군사 훈련과는 다르며 힘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함.

2017. 9. 27.

- 北美 ‘말폭탄’ 싸움말리는 中 “트럼프는 북한에 겁주지 말라”(연합뉴스)
 -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위협에 이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선전 포고’ 발언 등을 소개하고,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심각히 여겨 김정은 참수 작전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함.

- 이 신문은 “북한은 미국이 언제라도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최근 평양에서의 대규모 반미 집회는 이런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을 수주 내 공격할 생각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함.
- 아울러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미국 전략가의 판단을 반영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위협해온 것일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위협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대통령과 정부가 세계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며 북한과 같은 나라로부터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고 분석함.

■ 中, 트럼프 대북 군사옵션 거론에 “무력으로 문제 해결 못 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우선적인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면 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함.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줄곧 군사적 수단은 절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무력으로서는 이걸을 해결할 수 없고 더 큰 재난을 일으킬 뿐이다”라고 비판함.
- 루 대변인은 “군사옵션은 국가와 지역을 더 불행하게 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핵 비확산 체계 수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함.

2017. 9. 28.

■ 美中 고위층 잇따른 상호방문…북핵·트럼프 11월 방중 논의(연합뉴스)

- 최근 북한과 미국 최고 수뇌부의 거친 말싸움으로 한반도 긴장이 격화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고위층 간 상호 방문이 잇따르고 있음.
-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번주 방중한 데 이어 류옌둥(劉延東) 중국 부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워싱턴을 방문하며, 30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함.
- 이들 미중 고위급의 잇따른 상호 방문은 올 11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의제 조율이 목적인 것으로 보임.

■ **미 고위 관리, ‘중국의 북 기업 폐쇄’ 긍정 평가(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 기업이나 북중 합작기업에 대해 내년 1월까지 폐쇄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미국 재무부의 시걸 만델커(Sigal Mandelker)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28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함.
- 이날 함께 청문회에 나온 국무부의 수전 손튼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 측의 대북 압박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함.

2017. 9. 29.

■ **중국 방문 나선 틸러슨 미국무 “北문제 테이블 위에 오를 것”(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부터 내달 1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틸러슨 장관은 이날 중국 방문길에 오르기에 앞서 국무부 청사에서 방미 중인 류옌둥(劉延東) 중국 부총리와 면담을 했으며, 면담 직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 방문 때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중국 방문에서 최우선 안건은 무엇이냐’고 묻자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중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방중 의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함.

나.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미·러 관계

2017. 9. 27.

■ **크렘린궁 “美 전략폭격기 北 인근 비행 극히 바람직하지 않아”(연합뉴스)**

- 러시아 크렘린궁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북한 인근

지역 비행을 비판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함.
- 그는 그러한 행동은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게 한다면서 동시에 아주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함.

라. 중·일 관계

2017. 9. 24.

■ 왕이 “日, 북핵대화 방해하면 안보리 결의 위반...언행 신중하라”(연합뉴스)

- 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자리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해 대북 제재 압력을 협상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왕 부장은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이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는 것이지만 협상 재개도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일본이 제재만 주장하고 대화를 말하지 않거나 심지어 대화를 방해한다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일본 측이 언행에 신중성을 기해 한반도 핵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발언함.
-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추진은 지역 평화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일본은 중국 등 각국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함.

2017. 9. 25.

■ 中 “트럼프, 韓대북지원 불쾌감 표시했다”는 日언론 오보 비판(연합뉴스)

- 유엔총회를 계기로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일본의 일부 언론매체들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비판했다는 오보를 낸 데 대해 중국이 비판함.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오보 사건에 대해 평론을 요청받고 “우리는 이번 보도 외에도 일본 지도자 역시 이전에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확실히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함.

- 루 대변인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미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국과 북한은 한 민족이다. 중국은 일관되게 남북이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와 화해 협력을 증진해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함.

2017. 9. 28.

■ **“아베, 도쿄서 열리는 중일국교정상화 45주년 행사 참석”(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열리는 중국 국경절 및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에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15년만이며, 아베 정권 들어서는 처음임.
-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일인 29일에는 양국 정상에 축하 및 감사 메시지를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마. 중·러 관계

2017. 9. 25.

■ **中·러 해군, 日북단 오후츠크해서 첫 훈련…“美日 압박의도”(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일본 북단인 오후츠크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개시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함.
-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국방부를 인용해 중러 양국 해군이 22일부터 오후츠크해에서 해상훈련을 시작했으며 26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힘.
- 이번 훈련은 양국이 2012년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해운 ‘해상연합’ 훈련의 일환이며, 신문은 양국 해군의 합동 해상훈련이 오후츠크해 남단까지 확대되고 공동 대잠수함훈련을 하는 것도 처음있는 일이라고 보도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9.26	美하원, 정보유입 대폭 강화한 北인권법안 만장일치 통과(연합뉴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하원 본회의 통과(미국의소리)
	9.27	NGO들 상원 외교위에 서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 촉구(미국의소리)
	9.28	미 농무부 “북한 올해 쌀·옥수수 생산 지난해와 변함없어...유엔 통계와 달라 (미국의소리) 폴란드 “북한인 임시 거주도 허용 안 해...고용금지 예외 조항 삭제 추진”(미국의소리) 스리랑카, 북한인 입국규제 강화...온라인·해외에서 비자신청 금지(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9.25	“북한 9월 배급, 유엔 권장량 절반”...“식량사정 반영 못해” 지적도(미국의소리)
	9.28	북, 국제사회 지원 크게 줄어 물가 상승(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9.26	조명균 “이산가족이 기차 타고 고향 갈 수 있게 최선”(연합뉴스)
	9.27	北박병석 “北, 아직 김정일 독재?...북한인권포털 초등생자료 오류”(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문포로	9.25	미 ‘입국제한’ 탈북난민은 예외(자유아시아방송)
	9.28	한적, 사할린 한인 2~3세 모국 방문 및 가족상봉 지원(연합뉴스)
대북지원	9.23	리용호, 유엔기구들 만나 대북 지원 호소(자유아시아방송)
	9.28	스웨덴 “대북지원 분배감시 1년 한 두 차례...현장접근 위해 당국과 협조”(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9. 26.

■ 美하원, 정보유입 대폭 강화한 北인권법안 만장일치 통과(연합뉴스)

-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USB 드라이버,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등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함.
-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을 표결에 부쳐, 불참자 18명을 제외한 415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함.
-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형식이지만,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임.
-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함.

■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하원 본회의 통과(미국의소리)

- 유엔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함. 기존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만을 규정했지만,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하도록 함.
-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었음.
-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이번에도 재승인 법안을 발의함.
- 로스-레티넨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외부 정보를 유입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중요한 지렛대들을 미국 정부에 계속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함.

2017. 9. 27.

■ NGO들 상원 외교위에 서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 촉구(미국의소리)

- 세계 여러나라 비정부기구(NGO)들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함. 만료를 앞둔 북한인권법의 5년 연장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인데,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여함.
- 8개 국제 NGO들과 30명의 인권운동가, 한반도 전문가, 종교 지도자들이 상원 외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
- 서한은 지난 21일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에게 전달됨.
- 서한 작성을 주도한 ‘인터네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내서니엘 렌스 국장은 26일 ‘VOA’에 한 달간 서명자들을 모아 상원에 전달했다고 밝힘.

2017. 9. 28.

■ **미 농무부 “북한 올해 쌀·옥수수 생산 지난해와 변함없어”…유엔 통계와 달라 (미국의소리)**

-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수확량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전망함. 올해 가뭄으로 주요 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의 전망과 대조적임.
- 미 농무부는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함.
- ‘VOA’가 27일 미 농무부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올가을 추수에서 쌀 160만t, 옥수수 220만 t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해 가뭄 때문에 쌀과 옥수수 등 주요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의 전망과 다른 것임.
- 미 농무부는 특히 올해 쌀 수확량이, 가뭄 피해로 130만t의 쌀을 수확했던 2015/2016 양곡연도 보다 30만t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 익명을 요구한 미 농무부의 한 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농무부가 위성 등을 통해 북한 농작물 재배 현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으며 열흘에 한 번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고 밝힘.

■ **폴란드 “북한인 임시 거주도 허용 안 해…고용금지 예외 조항 삭제 추진”(미국의소리)**

- 폴란드 정부는 각 지방 정부에 북한인들에 대한 노동허가서는 물론 임시 거주증 심사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확인함. 최근 불거진 폴란드 내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인 근로자가 참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음.
- 폴란드 정부는 최근 통과된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을 중단했다고 확인함.

- 폴란드 외무부는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와 외국인관리국이 최근 각 지방정부에 해당 지시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힘.
- 유럽연합이 지난달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에 담긴 대북 제재 내용을 자국법에 편입하는 절차, 즉 제재를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안 자체적으로 노동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심사 중지 요청을 내렸음.
- 또 이번 심사 보류 조치에는 자국 내 노동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주는 관련 허가서들이 포함된다고 덧붙임.

■ 스리랑카, 북한인 입국규제 강화...온라인·해외에서 비자신청 금지(미국의소리)

- 스리랑카가 북한인들의 입국 규제를 강화함.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
- 스리랑카 정부는 북한인들이 더 이상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힘.
- 스리랑카는 지난 15일 작성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가 모든 북한 국적자들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함.
- 아울러 북한인들의 해외 주재 스리랑카 외교공관에서의 비자 신청도 불가능해짐.
-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스리랑카 외교공관들은 신원조회를 위해 모든 비자 신청을 본국으로 돌릴 것을 지시 받음.
- 이번 조치는 안보리의 제재 대상 북한인의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리랑카 정부는 밝힘. 따라서 스리랑카 이민 당국은 관련 기관에 북한 국적 제재 대상자들이 입국은 물론 환승 목적의 스리랑카 방문도 하지 못하도록 확고히 했다고 강조함.
- 스리랑카는 최근까지 북한과의 교역이 있었던 나라로 알려짐.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9. 25.

■ “북한 9월 배급, 유엔 권장량 절반”...“식량사정 반영 못해” 지적도(미국의소리)

- 북한 당국의 지난달 식량 배급량이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배급량과 식량사정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함.

-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들에게 일인당 하루 300g의 식량밖에 배급하지 못했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25일 밝힘.
- 저조했던 7월 배급량과 같은 양으로, 지난 1분기와 6월 기록했던 400g 수준에서 대폭 줄어듦.
- 또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 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300g을 공급했었고, 식량 사정이 좋지 못했던 2013년 9월에도 이보다 많은 390g을 할당했었음.
-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배급량이 떨어진 것을 반드시 식량 부족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말함.
- 브라운 교수는 따라서 현재 주민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기 보다는 북한 당국이 수확 농작물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해 배급량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함.

2017. 9. 28.

■ 북, 국제사회 지원 크게 줄어 물가 상승(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의 장마당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임. 올해 농사작황이 좋지 않은데다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정국으로 대북지원마저 대폭 감소해 장마당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5일 “7월부터 오름세이던 장마당물가가 여전히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면서 “특히 식량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청진시 수남 장마당의 경우,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면서 “한번 오른 식량가격은 내리지 않고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시장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라고 설명함.
- 소식통은 또 “이달 들어 입쌀은 5천 7백 원에서 6천 원으로, 옥수수는 2천8백에서 3천 원대까지 오른 후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해로 물난리를 겪었던 2015년에도 식량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고 전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9. 26.

■ 조명균 “이산가족이 기차 타고 고향 갈 수 있게 최선”(연합뉴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6일 이산가족에게 “살아 계실 때 고향 땅에 기차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 조 장관은 이날 서울역에서 열린 이산가족 초청 ‘희망 풍차 해피트레인’ 행사 축사를 통해 “오늘 열차가 북쪽까지,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 중국 땅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군사분계선 직전까지밖에 가지 못한다”라면서 이렇게 말함.
- 조 장관은 “철도 연결과 이산가족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는 문제를 정부 내에서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임.

2017. 9. 27.

■ 박병석 “北, 아직 김정일 독재?…북한인권포털 초등생자료 오류”(연합뉴스)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초등학생용 자료에 북한이 ‘김정일 1인 독재체제’라고 표현되는 등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 27일 밝힘.
- 박 의원에 따르면 통일교육원 및 북한인권포털에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 제목의 동영상 자료를 보면 북한에 대해 “당 최고 권력을 지닌 김정일에 의한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돼 있음.
- 이 자료는 통일교육원에서 만든 것으로, 통일교육원은 이를 지난해 12월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함. 북한인권포털에는 지난 3월에 올라옴.
- 북한인권포털에 있는 자료는 현재도 변경 없이 그대로 남아 있음.
-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통일교육원이 2011년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게재 시점만 바꾼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9. 25.

■ 미 ‘입국제한’ 탈북난민은 예외(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이 지난 24일 북한을 포함한 8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함. 테러범 등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국적자의 이민과 비이민을 금지하는 이번 조치는 그러나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하는 탈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존 무슬림 6개국을 대상으로 90일간 미국 입국을 일시 제한했던 ‘반이민 행정명령’의 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추가함. 반면, 그간 정보 공유 노력을 보인 수단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됨.
- 그러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미국에 망명 혹은 난민으로 입국하는 개인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포고문은 밝힘.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원하는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들이 이번 조치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임. 따라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고문, 구금, 심지어 처형에 이르는 탈북 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2017. 9. 28.

■ 한적, 사할린 한인 2~3세 모국 방문 및 가족상봉 지원(연합뉴스)

- 대한적십자사(한적)는 국내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와 사할린에 남아있는 한인 2~3세의 가족상봉을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힘.
- 한적은 이날 “고령 사할린 한인 1세와 한인 2~3세의 이산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최초로 ‘사할린 2~3세 모국방문’ 사업을 진행한다”며 “이 사업으로 사할린 한인 2~3세 264명이 8차례에 걸쳐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전함.
- 모국방문 행사 참가자들은 안산고향마을과 인천 논현동 임대아파트의 친지 집에 7박 8일 일정으로 머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출국함.

5. 대북지원

2017. 9. 23.

■ 리용호, 유엔기구들 만나 대북 지원 호소(자유아시아방송)

-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결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난해와 다름없이 올해에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비공개로 유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지원을 호소함.

-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니세프(UNICEF), 즉 유엔아동기금은 최근 리 외무상 일행을 만난 사실을 확인함.
- 운영 예산 최대 기부국들의 반대로 지난해 말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측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요청으로 22일 리 외무상 일행을 만나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함.
- 유엔아동기금측도 “리 외무상과 김창민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을 만나 북한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함.

2017. 9. 28.

■ 스웨덴 “대북지원 분배감시 1년 한 두 차례...현장접근 위해 당국과 협조”(미국의소리)

- 스웨덴 정부는 대북지원 물품의 분배 감시를 위해 1년에 한 두 차례 현장 검증을 하며, 해당 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수잔 미하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 지원 담당 국장은 26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도 인도주의는 별개 사안이라며 올해도 292만 달러 예산으로 대북 사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설명함.